

로마의 도전

개신교도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가?

Rome's Challenge: Why Do Protestants Keep Sunday?
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
1893

미주 시조사
2021

본 책자에 제시된 네 편의 기사는 가톨릭교회의 정기 간행물 “가톨릭 미러(Catholic Mirror)지의 1893년 9월 호에 연재되었던 내용으로, 같은 해 11월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소재한 “국제 종교 자유 협회(International Religious Liberty Association)”의 간행물 “종교 자유 총서(Religious Liberty Library)”지 제 15호에 A. T. 존스 목사가 자신의 논평을 포함하여 재발간 한 것이다.

목 차

머리말	4
개신교도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가?	5
기독교의 안식일 I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2 일자 사설	7
기독교의 안식일 II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9 일자 사설	12
기독교의 안식일 III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16 일자 사설	18
기독교의 안식일 IV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23 일자 사설	25
결론	30
부록 I	37
부록 II	40

머리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책자의 성격과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로마의 도전(挑戰)”은 본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회”라 표기함)의 대총회 산하 국제종교자유협회가 발행한 책자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안식일 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주장을 게재한 것이다. 이 책자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130 여 년 전, 1893 년 5 월 1 일부터 10 월 말까지 개최된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일요일에도 박람회를 열기로 한 계획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개신교계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해결 과정에서 사법부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의회는 그에 힘입어 일요일에는 박람회를 휴장(休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헌법 정신인 “정교(政敎) 분리”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금지된 분야에 간여(干與)한 사례가 되므로, 재림교회 대총회는 이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항의와 호소”라는 제목의 책자에 담아 전 미국의 주요 기관들과 종교 단체들 앞으로 발송했다.

이 “항의와 호소”를 받아 본 로마 가톨릭교회 측은 그들의 기관지인 “가톨릭 미러”라는 신문을 통해 그 해 가을 4 회에 걸쳐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사설(社說)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 사설은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가 비성서적이며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불과한 것임을 밝히고, 성서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철저히 “변호 불능, 자기 모순적, 자멸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종교자유협회는 가톨릭교회가 발표한 이 네 번의 사설을 하나로 묶고, 거기에 머리말과 부록을 첨가하고, 사설 본문에 편집자의 주석과 각주를 넣고 권말에 “해설: 숨겨진 역사 한 토막”을 삽입하여 “로마의 도전: 개신교도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가?”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 이것이 “로마의 도전”의 초판이었다.

이것의 다량 보급이 성공하자 가톨릭교회 측은 거기에 부록 2 를 첨가한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 그러므로 “로마의 도전”은 재림교회의 찬조로 만들어진 가톨릭교회의 역사적 작품이라 함이 좋을 것이다.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

미주 시조사 편집실

개신교도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성경으로 입증된 예배일이라고 짐작하고 일요일을 성수(聖守)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로마 가톨릭교회가 성서적 안식일(安息日)의 신성성(神聖性)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옮겼으므로 이 변경이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는 개신교 측의 주장은 그들의 부정직을 드러내 주며 그들이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또 개신교회들이 그들의 모든 교리가 오로지 성경으로부터 유래했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은 마땅히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1893년 2월 24일 제칠일안식일재림교 대총회(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는 미국 대법원에서 미국을 가리켜 기독교 국가라고 판결한 것과 하원에서 종교에 관련된 법령을 통과시킨 것을 항의하며 재고해 줄 것을 종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같은 해 3월 국제종교자유협회는 이 결의안들을 “호소와 항의(Appeal and Remonstrance)”라는 소책자에 실어 출판 배포하였다.

그 당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소재하던 가톨릭 미러(Catholic Mirror)지의 편집인이 이 소책자를 받아 본 다음 같은 해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에 발행된 가톨릭 미러지에 4회에 걸쳐 사설을 연재했다. 가톨릭 미러지는 기본스 추기경 산하 미국 천주교의 공식 기관지였다. 그러므로 이 사설들은 추기경 자신의 친필 문서는 아닐지라도 그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 주제에 관한 교황권의 정식 의사 표현으로서 개신교계를 향한 공개적 도전이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이 사설들을 통해 개신교계가 무엇을 근거로 일요일을 성수하며 어떤 경로로 일요일을 지키게 되었는지에 관해 개신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에 게재된 내용은 편집인의 해설과 두 개의 부록을 제외하고는 가
톨릭 미래지에 실렸던 사설의 내용을 아무런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 출판한 것
이다.

발행인

기독교의 안식일 I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2 일자 사설

기독교의 안식일은 성령과 그의 아내인 가톨릭교회와의 연합으로 탄생한 정품(正品)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개신교단의 모든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자기 모순적이며 자멸적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독교의 안식일”이란 주제를 다룬 “호소와 항의”(Appeal and Remonstrance)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편집인의 수중에 들어왔다. 국제종교자유협회가 발행한 21 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가 채택한 결의문(1893 년 2 월 24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결의문은 미합중국의 하원과 대법원이 세계 박람회를 일요일에는 개장(開場)하지 못하도록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매우 신랄한 비평을 담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을 믿음과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기독교 종파 중 예배일이 주일(週日)의 제칠일로부터 제일일로 옮겨졌다는 주장이 성서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표명하는 유일한 기독교 단체다. 그래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라고 표기함)가 그들의 공식 명칭이다. 그들의 핵심 신앙 원칙 중 하나는 토요일을 성별하여 하루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명령하신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수 천년 지켜왔고 오늘날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상 봉사 기간 중 친히 가르치시고 행위로 옹호하신 원칙이다.

반면, 재림교회 외 모든 개신교회들도 동일한 성경을 진리의 근원이요 결코 오류를 포함하지 않은 유일한 경전으로 소중히 받들고 있지만, 16 세기 무렵에 출현한 이래로 개신교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경건하게 지켜온 안식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경에 한

변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일요일을 경배의 날로 지키는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거의 매 일요일에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행위를 질타하며 그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경종을 울리지 않는 개신교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나라 방방곡곡에 산재한 개신교 목사들이 세계 박람회를 일요일에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우성치며 광적으로 분개하던 것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또 주(主)의 날의 신성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만이 서명한 수천 장의 진정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이런 수준의 광범위한 흥분과 소란스런 항의 운동은 그렇게 대대적인 반대를 유발할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박람회 현장에 각종 개신교 단체들을 위한 전시장 배정이 끝난 후, 대법원 측으로부터 일요일 개장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장로교 형제들이 발휘해 보였던 고결하고 양심적인 분노를 누가 잊을 것인가?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배정된 공간의 사용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들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전시물들을 철수할 권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신성 모독적이며 안식일을 훼손하는 전시장 측과의 일체의 접촉을 사절한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의 칼빈주의파 형제들은 다른 모든 교단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만도 했다. 그러나 다른 교파들은 안식일 준수를 엄격히 고수하는 순교자로 행세할 기회를 놓치고만 셈이다.

이렇게 그들은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을 독점해 버렸는데, 무정하게도 다른 개신교 교파들은 장로교의 종교적 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집착을 바리새인적 교만이요 지독한 옹고집이라 폄하(貶下)해 버렸다.

이 기사를 연재하는 우리의 목적은 이 중대한 의문점을 조명(照明)하며 독자들이 문제의 모든 국면을 확실히 이해하고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개신교단의 강단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한 의문점이 제거된다

면, 개신교 각 교단은 향방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고 목사들은 그들이 즐기는 설교 목록 중 하나를 빼앗기는 셈이 될 것이다.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계는 그들의 교리와 행위를 통해 주일 중 첫째 날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피차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주일 중 마지막 날을 성일(聖日)로 지키고 있다. 소수 종파인 재림교회 역시 주일 중 마지막 날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과 재림교인들은 공히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엄격한 토요일 준수를 의무화 함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의 권위만 존중하나 재림교회는 기독교 교파로서 구약과 신약 공히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다. 재림교회는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구약과 신약이 상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구세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토요일 외에 어느 다른 날을 성별하신 적이 없다고 믿는다. 사복음서가 이 사실을 명백히 해 주며, 사도행전과 편지서들, 또 요한계시록 등에서도 제칠일 안식일 제도가 취소되었다는 한 오라기의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한다.

재림교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의 신조를 구약 성경에서 유도해 내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첫 한 세기 동안 구세주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지속된 삶과 실천의 거룩한 기록, 곧 신약 성경에 의해서도 확증되며 전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숫자적으로 재림교회는 세계 개신교 인구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 의문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진리에 관한 것이며, 사실과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있어 공정을 기해야 하며 선입견을 배제한 엄격한 조사 없이 이 작은 교단을 정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¹ 우리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개신교계는 그들이 처음 출범했던 16 세기부터 현재 까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성수(聖守)해 왔다는 점에서 가톨릭교회의 행습과 철저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삼백년이 넘도록 정서와 관습에 있어 두 교단이 피차 일치해 온

근거를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한 개신교회의 입장을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개신교단의 주장이 이스라엘 민족과 재림교회가 제시하는 반론, 즉 개신교 측에서 이 두 단체가 그들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민족과 재림교회가 제시하는 반론을 개신교계의 절대 다수 교회들이 반박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양편이 공통적으로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성경을 채택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자 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 배도한 교회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일요일 교리를 수용하고 일요일 준수를 엄격히 주장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그들이 지키는 일요일 제도는 가톨릭교회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들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개신교단은 결국 지난 삼백년 동안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오류를 가르치고 실천해 왔음을 시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성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실수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이 이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인류에게 주신 계명 중 가장 노골적이며 단호하게 표현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개신교도들 중 아무라도 이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여 지킨 적이 없다. 이들은 성경 보다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배도한 교회의 가르침을 선호하여 따르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과 재림교인들의 주장이 옳다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개신교회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측 다 성경을 무오(無誤)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여 지키게하신 날이 과연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인지를 성경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양편 다 옳을 수는 없다. 이 중 어느 한 편은 틀린 것이다. 또한 이 중대한 이슈를 두고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언약”을 범한 자들에 대한 두려운 형벌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이제 양측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중대한 주제의 논의는 보통 사람의 지력의 한계를 넘는 것도 아니

고, 또 대단한 연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논의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몇 개의 평범한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성경은 주일 중 어느날을 성별(聖別)하여 지키라고 명하는가?
2. 신약 성경이 그 율례와 관습으로 원래의 계명을 개정했는가?
3. 개신교 신자들은 16 세기 이래 그들의 무오의 안내자요 스승인 성경이 명한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 제시한 세 개의 질문을 놓고, 우리는 진리를 옹호하는 일과 그릇된 오류를 찾아 밝히는 일에 추호도 실패함이 없는 논리적인 해답을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편집자 주(註)

¹ 현재 가톨릭교회가 다루고 있는 개신교계에 대한 “공정하며 선입견을 배제한 엄격한 조사”가 완료된 다음 재림교회에 대한 조사와 정죄도 적절한 때에 시행될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의 안식일 II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9 일자 사설

“그러나 신앙, 특히 광적(狂的) 신앙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오류와 단단히 결합한 후에는
그것을 부동켜 안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

--- 무어(Moore)

지난 호의 변론에 언급된 약속에 따라 이제 우리는 성서적 신앙 원칙 중 가장 명백한 오류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모순 하나를 폭로하려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개신교가 무오의 성경” 외에는 아무도 스승으로 모시지 않으며 성경을 떠난 어떠한 신앙 원칙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변론을 진행하려 한다. 가톨릭 신자가 영적 의문에 관한한 추호의 주저함 없는 확신으로 교회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탁하며 복종하는 것 처럼, 개신교도들은 성경 외에 아무 것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영성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그들에게 유일한 영감 받은 스승이자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다. 성경은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그 행위의 구현(具顯)이다. “성경, 온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 신앙이다”라는 칠링워스(Chillingworth)의 발언은 동일한 사상의 여러 표현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책”, “우리 구원의 헌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전”, 및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 신앙의 스승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지난 호에 언급한 이슈들의 요소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려 한다.

한편에는 개신교계와 - 여기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제외됨 - 다른 한편에는 유대인들이 피차 상반된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일로 주일 중 서로 다른 날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슈에 해답을 찾기 위하여 가장 유력한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증거란 다름 아닌 성경인데, 성경은 양측 다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 장 2 절에서 발견된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주제에 관한 그 다음의 언급은 출애굽기 20 장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제칠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조사업을 마치시고 그 날 쉬셨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제기하셨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² 또 같은 책 31 장 15 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킹제임스역).” 16 절에서는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이라 했고, 17 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는 제칠일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총 126 회 나오는데, 이 모든 본문들은 제칠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상충(相衝)됨 없이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날을 지키셨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며 안식일 준수는 백성들에게 의무가 된다고 말한다. 아마도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또는 그 날이 제칠일인지 의심하리만치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해인 세계 기원 후 2514 년부터 주 후 1893 년까지 3383 년 동안이나 토요일 준수를 계속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직접 목도(目睹)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사례를 우리눈으로 목격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 확증이란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요, 구약 성경의 수호자들이요, 지금까지 존재해 온 유일신 신앙의 살아있는 대표자들이요, 기독교가 발생하기 전 1490 년 동안이나 존재했고, 주일 중 토요일을 특별한 날로 매주 지킴으로 “주께 거룩히 쉬”라

는 바른 해석을 보존하였고, 그 유전(遺傳)에 이어 추가로 1893년 동안이나 더 연장해서 지킴으로 기독교 시대의 전 기간 동안에도 안식일 준수를 계속 유지해 왔다. 앞으로 보다 확실한 해명이 제시되면서 이 점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3383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매주 지켜온 산 유전에 의해 입증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별해서 지킬 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셨다고 가르친다. 그 지정된 날은 토요일이었으며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 31:14)

위의 성경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엄숙하게 선포하신 이 형벌보다 더 심한 형벌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고대 율법에 적어도 126회나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형벌이 적용되는 것이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은 아직 어릴 때부터 정규 교육을 통해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암기하도록 요구 받는다. 그렇지만 주일학교와 설교 예배를 통해 열 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보다 더 열렬히 강조되는 계명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안식일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보다 신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되었다.

수천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들에 의해 그날이 준수되었고, 또 그분께서 그날에 친히 쉬셨고,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확고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지정된 날을 언제 어디서 변경하셨는지 누구나 조사해 보고 싶은 충동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날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인 반면, 그런 변경에 관해 구약 성경에서는 암시된 바가 없으며, 거의 1900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해서 기록된 계명을 순종해 온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도 암시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슈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 시대를 대표하는 신약 성경을 파헤쳐서 혹시 그 안에 제칠일 안식일 제도의 폐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 밖에 없겠다.

우리는 이제 거의 1900 년에 달하는 기간을 놓고 그 기간 동안에 거룩한 스승으로 추가된 신약 성경을 살펴볼 것이다. 고대 율법에 명기된 의무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칠일 안식일을 대신하는 어떤 다른 날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이 선포되었는지를 신약 성경 안에서 조사하려 한다. 곧 1900 년의 기간 동안 토요일이 준수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날도 그 날이었던 만큼, 기독교 신자들의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신적(神的) 권위 하에 현 법령을 취하(取下)하는 형식으로 토요일 언약을 폐기(廢棄)하고 다른 날을 지명하여 그 날을 토요일 대신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 성경 안에 있어야 하겠다. 참된 기독교 신자가 인정하는 유일한 스승은 성경이고, 날자의 변경에 관해 구약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독교계가 성수하고 있으니, 개신교 신자라면 신약 성경의 어느 책 몇장 몇절에 의해 토요일이 폐기되고 그 대신 종교개혁 초기부터 개신교가 지켜왔던 일요일로 대체되었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령을 신약에서 찾아내어 제시하고 싶은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평적 안목으로 철저히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안식일이 61 회 언급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 구주께서는 예외 없이 안식일(토요일)을 택하시어 그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게되었다. 사복음서에서만 안식일이 도합 51 회 언급되어 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³ 구주께서 한번은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의 기록을 통해 단 한 번도 그분은 그 날을 변경하고 싶다는 언질을 주신 적이 없다. 게다가 그의 사도들과 그를 가까이 따르던 자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 아직 무덤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양심을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뚜렷한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누가복음 23 장 56 절은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눅 24:1) 향품과 향유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 곧 안식일이 거의 다다른 시간에 준비된 것이었다.(54 절) 구세주의 가까운 친구들이 보여준 이 행동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

에도 그들이 토요일을 거룩히 지켰고 일요일을 주일 중 다른 어느 날과도 다를 바 없는 날로 간주한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한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여신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토요일 이외의 다른 안식일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결론짓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문제의 조사를 위해 전도자 누가가 기술한 향후(向後) 30 여년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려고 한다. 만약 날짜에 어떤 변경이 있었다면 그 연장 기간 중 그 날이 취소된 어떤 흔적을 사도들의 행적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 슬프게도 우리는 다시 한 번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사도행전에 안식일에 관해 9 회 언급되지만 그것은 한결같이 토요일, 즉 옛 안식일에 관한 언급일 뿐이다. 독자들이 증거를 요구할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각 경우의 장절(章節)을 밝혔다: 사도행전 1:12, 13:14, 27, 42, 44. 또 사도행전 15:21, 16:13, 17:2, 18:4 에 각각 언급되어 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講論)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행 18:4) 그러므로 제칠일 안식일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구주나 그의 사도들에 의해 원래의 안식일이 추호라도 간섭을 받은 흔적을 신약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원래의 제도가 전적으로 옹호된 기록 밖에는 없다. 아니, 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전적으로 지지하셨고 게다가 사도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0 여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안식일 준수에 참여했고 그날 이외의 다른 날을 준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풍성히 증언해 준다.

그러므로 필연적 결론은 이것이다. 즉, 성경을 안내자로 삼은 자들, 곧 이스라엘 민족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신자들 측에는 모든 압도적 증거가 있는 반면, 일반 개신교 신자들은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체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옹호할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음 호에 계속됨.

편집자 주(註)

² 말할 나위 없이 이 사설에 인용된 모든 성경 구절들은 “두에이판 영어 성경(Douay Version)”, 곧 가톨릭 교단의 성경에서 왔다.

³ 이 사건은 마가복음 2 장 28 절에도 기록되었다.

기독교의 안식일 III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16 일자 사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인 악의 왕 사탄이 인류의 첫 모친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는 속임수로 하와의 야심을 자극하여 그녀의 눈을 뜨게 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의 행위는 그 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하와의 자손을 유혹하는데 사용된 그럴싸하고 대단히 성공적인 수많은 시도들 중 첫 번 것에 불과했다. 하와처럼 그의 자손들은 너무 더디 깨닫는다. 아! 슬프게도 그의 유인책은 하와의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끌어내는데 큰 효험이 있다. 본 변론이 다루는 주제도 이 악한 왕의 상투적 술책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지난 삼세기 동안 불만과 야심으로 가득 찬 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사탄은 하나의 “새로운 이탈(離脫)”이 성공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그럴 듯하게 제시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새로운 스승(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영특한 악마는 자신의 책략이 눈부신 성공을 거둘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낙관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모험을 실행하기 위해 사탄에게는 한 담대하고 탐험적인 정신을 소유한 인물이 필요했다. 머지않아 악의 왕 사탄은 이 모험을 위해 배도한 수도사 루터(Luther)가 적임자임을 발견했다. 루터는 자신과 자신의 주인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그의 “탁상 담화(Table Talk)”와 1558 년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멜랑톤(Melanchthon)의 감수 하에 출판된 그의 저서들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사탄과 루터 사이의 여러 차례에 걸친 담화의 내용은 루터가 자신을 향해 던진 증거물로 남아있다. 이 증거물들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즉 에덴동산에서 뱀이 이룩한 그 능수능란한 행적을 루터가 기독교계에서 성취하였던 것이다.⁴

“방황하는 저들에게 안내자를 보내주라.
 술수가 담대하고 속임수를 사사(師事)받은
 그의 모험적 손이 향해 키를 잡고 잘못 돌려
 원수의 해변에 도착하거나 파도에 파묻혀 버리도록!”

루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할 때 악마가 그에게 제시한 목표는 기독교의 파멸이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가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려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것들이 제시하는 바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자기모순적이며, 오류 투성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의 기만을 더 깊이 파헤쳐 보자.

앞에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사복음서에 51 회나 언급된 안식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볼 때, 구세주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그의 지상 생애 중 단 한 번도 충성된 안식일(토요일) 준수에서 스스로 이탈하신 일이 없었고 명령이나 행동으로 그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의향을 암시하신 적도 없었다. 또한 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 해주는 것처럼(눅 24:1), 주께서 돌아가신 날 저녁 사도들과 여신도들은 주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사전에 준비했다가 안식일(토요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지상생애 동안 단호한 의지로 준수하신 안식일 제도에 결함이 있거나 았았나 하는 의혹을 전적으로 배제해 준다. 누가가 증명한 대로, 주께서 돌아가신 후 그의 사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남긴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실을 말해 주거나와 향후 30년 동안이나 이 점에 있어 제자들도 주님의 본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안식일(토요일)을 지켰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행 18:4) 이방인 개종자들, 곧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집단적으로 동등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유일하게 준수했던 동일한 제칠일 안식일을 구주께서 돌아가신 다음 30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준수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 보았다. 이제 안식일(토요일)이 예배일로서 이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준수되었다는 더 많은 입증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주일의 첫째날에 관한 거룩한 말씀의 기록들을 살살히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일요일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누가복음 24 장 33-40 절과 요한복음 20 장 19 절에 나타나 있다.

위 두 본문의 내용은 그 날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유일한 이유에 관한 얘기다. 그 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부활절 일요일)이었는데, 그 모임은 옛 안식일(토요일)을 버리고 새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이탈”의 발족식(發足式)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된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처럼, 그 모임에는 기도라든지 권면이나 성경 낭독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방에 모여 웅크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온 인류에게 공표(公表)하는 사건의 기록일 뿐이다.

일요일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은 요한복음 20 장 26 절부터 29 절에서 발견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⁵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날 모든 사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던 날 저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의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셨다. 만일 구주께서 날짜를 변경하셔야 했다면 온 사도들이 다 모인 이 자리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활절 날 모임처럼 기도와 찬양, 또는 성경봉독 같은 것은 한 마디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

사도들이 일요일에 모였던 세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2 장 1 절에서 발견된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일요일이다)⁶ 자,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드디어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치(代置)되었다는 어렴풋한 희망을

제공해 줄 것인가? 유대인들이 이 일요일(오순절)을 이미 1500 년 동안이나 지켜왔고, 또 기독교가 정립된 후에도 18 세기 동안이나 이 날(오순절)을 지켜왔지만 이들이 제칠일 안식일도 중단 없이 매 주 함께 지켜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은 아무런 위로나 안위를 제공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일곱 이레(칠일에 일곱을 곱한 날)가 지난 다음 날, 곧 50 일째 되는 날(“주일들의 안식일”이라 불렸음)인데 ⁷ 이 날은 축제 기간 중 가장 큰 명절이었다. 그리고 이 날은 제칠일 안식일이 일곱번 지난 후 그 다음 날이므로 필연적으로 일요일일 수 밖에 없다.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민족이 3000 년 이상 지켜온 오순절 축일에서 주일 중 첫째날을 지키는 관습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 연민의 정을 토로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항상 지켰던 안식일을 모독한 것에 대한 평계가 없어 궁지에 몰린 성서적 기독교 신도 외에 누가 자기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스승인 성경을 외면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축일 오순절에 목을 매겠는가?

날짜의 변경을 옹호하는 성서적 변론인들은 흔히 사도행전 20 장 6 절과 7 절에 우리의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외관상으로 이 성구(聖句)가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성서적 친구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제공하는 듯 하나 우리는 원래 궤방꾼이라 부스러기 조각 같은 정도의 위로라도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지나치게 입증하려하면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격언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다. 사도행전 2 장 46 절을 한 번 살펴보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구절과 일요일 성수론(聖守論)을 입증하기 위해 내 놓았던 사도행전 20 장 6, 7 절을 나란히 대조해 보자. 이 두 구절들을 얼핏 보기만 해도 마치 신기루가 순간에 사라지듯 모든 효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서적 기독교 신도는 이 구절을 오직 일요일에만 적용하려고 애쓰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에 의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며 이런 일이 주일 중 아무 날에나 반복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구를 따로 놓고 보면 토요일을 일요일로 대치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6 장 1 절과 2 절에 기록한 말씀이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 바울의 이 요청을 신도들이 엄격히 잘 따라주었다고 가정하고 구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동안 매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행하여졌고 또 그 후 30 년 동안 어떻게 그 일이 계속되었는지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알아 보자.

크신 주인을 따르는 자들은 매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즉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이 낭독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강론하던 그의 관습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강론하였다.”(행 18:4)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과 같이 토요일마다 관례적 의무로 행해지던 성경 낭독, 기도, 권면 및 설교하는 일 등이 일체 폐지되고 대신 바울의 요청에 의해 주 중의 다른 날 연보를 거두는 일로 대치되었다고 추론하는 것 보다 더 엉뚱한 일이 어디 있을까?

지금 검토 중인 이 본문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여신도들이 수난 금요일 일몰 전에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구입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진 후 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상 행위를 중단하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일요일 아침에 비로소 거룩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 묘실로 찾아갔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을 토요일에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엄격한 안식일 준수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다. 안식일 준수는 다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성경 본문의 그 일요일 바로 전날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준수가 보류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안식일은 매주 성수되었으므로 그

것이 입증될 수는 없다) 일요일마다 연보를 모아두라고 한 바울의 요청은,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처럼 안식일에는 행할 수 없는 일로 분류되어 결국 편의상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곧 주일 중 첫째 날로 미루어졌던 것이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안식일(토요일), 그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일요일)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정리해본 결과 우리는 현재까지 성경에서 토요일이 일요일로 대체된 것을 증명할 만한 어렵פות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주의 날(Lord’s day, 또는 day of the Lord)”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조사해 보는 일이다. 이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다음 호의 기사를 통해 계속 다루려고 한다. 그리하여 어떤 종교 단체가 그 체제적 부조화 때문에 더 이상 변호 받을 수 없으며, 자기 모순적이며 자멸적인 것이 증명될 때 우리는 그 부조화를 적절히 지적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한다.

편집자 주(註)

⁴ 말할 나위 없이 여기 루터에 관해 언급된 것에 우리는 털끝만치도 동의할 수 없다. 루터가 모든 진리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는 교회는 루터교회 외에는 없다. 그러나 루터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인 중 영웅이다. 그의 개혁운동이 처음 시작된 기세로 계속되었다면,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교부들의 유전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교황권이 오늘날과 같이 “개신교단”을 향해 빈정거릴 수 없었을 것이다.

⁵ 이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은 개신교회의 주장인데, 가톨릭 미러지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주장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이 어떻게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큰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전 모임은 주일 중 첫째 날에 있었다고 성경이 밝히 말 해준다. 그리고 일주일은 칠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다음 첫 날까지는 칠(七)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기록은 이 모임이 팔(八)일 후에 있었다고 말한다. 일주일 속에 팔(八)일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숫자 게임이나 달력에 관련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는데, 성경을 곡해한 경우 치고는 도를 넘으므로 평균 지능을 가진 우리로서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위의 성

경 본문을 근거로 “여호와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을 도출(導出)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⁶ 그 오순절은 일요일이 아니었다. 다음 편집자 주(註)를 보라.

⁷ 우리의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므로 금요일은 유월절, 또는 무교절 절기의 첫째 날이었다. 그 날 다음 날부터 오순절날까지의 오십일이 계수된다.(레 23:6, 11, 15, 16) 그 날 다음 날은 계명에 의거하여 안식일이고(눅 23:56) 오십일 중의 첫째 날이다. 여기 확실한 사실은 오십째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사실이다. 임의로 어떤 금요일을 택하여 그 금요일의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오십을 계수하는 것은 아무라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월절은 주일 중 몇째 날이라는 언급이 성경에 없고 항상 첫째 달의 열네째 날이므로 오순절이 매년 일요일과 겹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여기 이 편집인의 주석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논란이 되고있는 현 문제, 곧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의 주장, 곧 그 특별한 오순절이 일요일과 겹쳤다는 주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 주석은 다만 성경 해석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 것이며 이 성경 본문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기독교의 안식일 IV

“가톨릭 미러”지 1893 년 9 월 23 일자 사설

“길이가 다른 짝짝이 목발을 짚고 절뚝이는 자여
한쪽 다리는 진실을 의지하고, 다른 쪽은 거짓을 의지하고
어색한 옆걸음질로 결승점을 향해가지만
온통 불안정스러우니 경주에 패배할 수 밖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셔서 당신을 예배하는 날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로 대체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들의 글에 기록되었노라고 성서적 기독교 신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증거들을 이번 기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런 급진적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or the Lord’s day)”이란 표현이 들어 있는 성경 구절들에서 거듭거듭 발견되는 주장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

먼저 “안식일”에 관한 주제를 지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구들이 신약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및 편지서들 가운데 도합 61 회 등장한다. 또 둘째 부류로 “주일 중 첫 날” 즉 일요일과 관련된 성구들이 아홉 개 있는데, 이들을 모두 철저히 분석한 결과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날짜를 변경하시려는 의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단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곧 마지막 부류의 성구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이 성구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저들의 스승인 성경에 추호의 정당성이나 근거가 없는 하나의 종교적 법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속여 팔아먹으려는 죄악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첫째 성구는 사도행전 2 장 20 절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예언이 선포된 후 일요일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가?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왜곡하는 우행(愚行)을 제발 그만 두기 바란다.!

이 부류에 속한 둘째 성구는 고린도전서 1 장 8 절이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언급된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이 부류의 다음 성구는 같은 편지서 5 장 5 절에서 발견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던 고린도인이 바로 다음 일요일에 구원을 받았다?!? 이 얼마나 가련한 둘러대기식 논리인가?

셋째 성구는 고린도후서 1 장 13, 14 절이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날이 어느 날인가? 일요일인가, 아니면 심판 날인가?

다섯째 성구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1 장 6 절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킹제임스역)” 선량한 빌립보 사람들은 다음 일요일에 곧바로 완전케 도달했으므로 그들이 현대 고속 수송 체제를 보았다면 아마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여섯째 성구를 바로 제시하는 것을 용납하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1 장 10 절이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날이 바로 다음 일요일이었으므로, 진실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리라.

일곱째 성구는 베드로후서 3 장 10 절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킹제임스역)” 이 성구를 일요일에 적용하려하면 우리는 모두 부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리라.

여덟째는 베드로후서 3 장 12 절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날은 바로 위에 언급된 날과 같은 날이다. 만일 이 두 구절의 “주의 날”을 다음 일요일에 적용해야 했다면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야인 토요일 밤을 뜯어먹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주의 날”을 일요일로 속여 팔아먹으려는 신성 모독적 계략을 떠받들기 위해 이용되는 성경 구절 아홉개 중 여덟을 소개했다. 그 결과가 어떤가? 그 성구들의 용례가 하나같이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며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한 말세적 기만을 폭로하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의 날”에 대한 아홉 번째 언급은 사도들의 기록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다. 말세의 예언인 계시록 1 장 10 절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나 이 말씀도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성구들과 같이 성서적 친구들에게 아무런 위로를 줄 수 없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나 편지서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을 쓴 일이 있는가? 단연코 없다. 그러면 이 때까지 그가 일요일을 언급한 적은 있었던가? 두 번 있었다. 그러면 그는 두 차례의 경우에 일요일을 무엇이라고 지칭했는가? 부활절 일요일을 그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중 첫날이라 불렀다.(요 20:1)

다시 20 장 19 절로 가 보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 하에 그의 복음서와 편지서들에서 동일하게 일요일을 “주일 중 첫날”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가 이 명칭을 버렸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계시록을 쓸 때는 그가 더 큰 영감을 받은 때문일까? 아니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일요일 준수가 더욱 일반화 된 까닭에 일요일을 위한 새로운 명칭을 채택한 것일까?

이와 동일한 표현을 이미 누가, 바울, 베드로가 여덟 번이나 사용했고, 그들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의 질문들, 특히 마지막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지나친 열성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심판 날을 “주의 날”이라 칭하게 하시고 유독 요한만은 따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도록 하셨을지 만무하기 때문이다. 변증론(辨證論)자들은 확실성이라는 무오(無誤)의 동기(動機)들로부터 유추(類推) 혹은 귀납(歸納)의 도덕적 동기를 예견(豫見)한다. 우리도 이 방식에 의거하여 알려

진 것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導出)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덟 번 사용된 한 어휘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으니 우리는 그 표현이 아홉 번째 사용되었을 때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특히 아홉 번의 표현이 모두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다른 자매 성구들의 경우처럼 위의 성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내적 뒷바침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요한은 계시록 1 장 10 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했는데, 같은 책 4 장 1, 2 절에서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이렇게 제공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때 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였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과 함께 올라가 보자. 어디로 올라간다는 말인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보자. 무엇을 보게될 것인가? -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계 4:1)이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주의 날”, 또는 심판의 날에 발생할 일들과 그 심판의 날 이전에 발생할 일들을 계시로 보았고, 또 그것들을 빠짐 없이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성서적 “주의 날”은 전적으로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옛 율법에 속한 안식일이 취소되었다거나 기독교 시대를 위하여 다른 날이 대신 책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가용(可用)한 증거들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수집했다. 그것은 혹시라도 셋째 계명이⁸ 어떤 새로운 법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조심스럽게 구분한 것이다. 그런 종류의 모든 주장은 1874년 감리교 감독 회의 때 내려진 결정에 의해 이미 완전히 배제된 바 있고 당일에 뉴욕 헤럴드지(New York Herald)가 그 대의(大意)를 이렇게 인용 보도하였다. “태초에 제정되었고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 거듭거듭 확인된 안식일 제도는 결코 폐지된 일이 없다. 이는 도덕율의 일부이며 그 신성성이 일점 일획도 제거된 일

이 없다.” 이런 공식 선언서는 수많은 성서적 기독교 신도들에게 새 율법 아래서도 셋째 계명은⁸ 영구적인 것임을 엄숙히 다짐해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독자들에게 영국의 성공회기도서(聖公會祈禱書)에 실린 39 개 신조 중 20 번째를 특별히 주목해 줄 것을 간구하는 바이다. “교회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편집자 주(註)

⁸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톨릭식 계산 방식으로는 셋째 계명이다.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명백한 사실들을 제시함으로 독자들이 절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 세기에 성서주의(聖書主義) 제도가 그 모습을 갖추게 되자 그 제도는 교회의 자산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그 야만적 운동을 통해 기독교를 여지없이 유린했다. 그리하여 창시자께서 제정하신 모든 성례와 거룩한 제사제도등이 모두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오직 성경 외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 주동자들은 성경만이 기독교 교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들의 유일한 스승이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는 물론이요 오늘날도 안식일 준수(일요일 준수를 말함 - 역자 주)를 영구적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 신조들 중 최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지난 삼세기 동안 개신교 교단들은 같은 성경을 신봉하면서도 교리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식일 준수에 관한 교리는 그들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신조다. 안식일 준수는 성서적 이론의 요약이요 본질로 여겨진다. 개신교회의 강단에서는 매주 가톨릭교 국가들의 안식일 준수가 성서적 국가의 적절하고 자기도취적인 안식일 준수에 비해서 느슨하다며 끊임 없이 공격하는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다. 세계박람회장을 일요일에도 열 것이냐는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을 때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목사들이 모든 개신교 강단을 통해 과시했던 고결한 의분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박람회에 전시하려고 반입했던 물품 상자들을 열지도 않고 그 결정에 대해 나타냈던 한 교파의 거룩한 분노에 대해 무지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지극히 선량하고 구변 좋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다면 그 안에서 자기들과 아주 흡사한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구세주께서 이 땅에 거하실 당시 그분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심히 괴롭히던 자들인데, 그분의 안식일 지키는 방식이 자기들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견딜 수 없으리 만큼 그분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던 유별나게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준수를 상식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증오한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바리새인적 교만을 경멸하셨는데 그들을 향한 경멸의 도가 극치에 달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묘사할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마음은 19 세기 말인 오늘날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나 동조자들이 외치는 노골적이고 격렬한 항의를 옛날과 다름없이 대하실 것이 분명하다. 고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참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우리의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맹신하는 바보 앞잡이들을 의존하며 평생토록 참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은 구주께서 돌아가시는 날 까지 지키셨고 그의 사도들도 주님의 본을 좇아 삼십년 동안 지킨 날이다. 위의 사실들을 겹쳐놓고 보면 가장 긍정적인 계명에 대한 고의적인 신성 모독적 배척이라 할 수 있는 극심한 모순이 오늘날 성서적 기독교계의 행위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과 안식일은 개신교 사상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는 상충됨을 입증했다. 우리는 그들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있을 수 없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그들의 성서적 조상들이나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단 한번도 지킨 일이 없음을 증명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지명하신 날을 그들이 매주 더럽히고 있음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들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역사적 증인이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인 성경은 도외시하고 정죄하면서도 오히려 가톨릭교회와 제정한 일요일을 채택하여 지키고 있다. 만일 개신교도들이 맑은 양심으로 이 변론들을 자세히 읽는다면, 그들은 자기의 스승인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안식일 제도가 제정되었음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길 것인가?

우리가 아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보다 더 바보스럽고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원칙 유기(遺棄)의 표본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스승은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을 매주 준수할 것을 매 페이지에 단호하게 요구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유일한 무오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그 스승의 제자된 자들이 삼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게 웬 일인가! 저 성서적 기독교 신도들의 거대한 집합체

인 감리교회는 안식일이 결코 폐지된 적이 없음을 이미 선언했고, 영국 국교를 따르는 신도들은 그들의 딸 격인 미국의 성공회와 함께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들의 신조 제 20 항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토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절대적으로, 반복하여, 가장 단호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최고로 명료한 위협이 그 계명에 첨부되어 있다. 모든 성서적 교회들은 하나같이 아무 변명으로도 자신을 정당화 하지 못하며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말씀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이 통탄할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가? “악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 오직 성경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유일한 스승을 비열하게 무시해 버렸다.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자들에게 경고하신 극히 두려운 위협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한다 해서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낙인이 찍힌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관습을 채택해서 따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연재 기사를 마감하기 전 허두(虛頭)에 제시되었던 우리의 주장에 독자들의 주의를 재환기시키려 한다.

1. 기독교의 안식일은 성령과 그의 아내인 가톨릭교회와의 연합으로 탄생한 정품(正品) 산물이다.
2. 이와 관련된 개신교단의 모든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자기모순적이며 자멸적이다.

첫 주장은 거의 입증(立證)이 필요 없다. 가톨릭교회는 개신교가 생기기 천년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힘입어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에 힘입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附與)하셔서 만민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하셨고,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취급하듯 징벌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실 것도 약속하셨다.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스승으로서의 헌장을 가지고 있다. 이 헌장은 무오적이며 동시에 영구적이다. 개신교가 탄생했을 때는

기독교의 안식일이 너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아무도 그 기존 제도를 역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 안식일 제도를 묵인하고 덮어둘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삼년이 넘도록 가톨릭교회가 예배의 날을 변경할 권한이 있음을 시인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안식일은 오늘날까지 성령의 아내인 가톨릭교회가 낳은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개신교계가 일언반구의 반박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자. 이번에는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스승이요 믿음과 윤리의 판단으로 삼을 것이다. 이 스승은 날짜를 변경하는 것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금지하는데 거기에는 중차대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영원한 언약”을 요구하는 명령이 포함되어었는데도, 스승이 지키라고 명령한 그 날은 한 번도 준수된 적이 없다. 그 결과로 확고한 원칙으로 부터의 엄연한 배도(背道)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표현하자면 “자기 모순적이지요,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이요, 필연코 자멸적”이다.

그 패륜은 아직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다. 아니, 아직 멀었다. 그들이 가톨릭교회의 품을 떠날 때 내놓았던 구실은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등지기를 위한 가식에 불과하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들의 유일한 스승으로 삼는다고 공언했으나 본 변론들을 통해 명쾌하게 지적된 것 처럼 그들은 그것을 채택하자마자 즉시 포기해 버렸다. 그들은 가장 필수적 교리에 있어서 그들의 유일한 스승의 명백하고 변치않고 한결같은 가르침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조롱거리, 망상, 함정”라고 적절히 표현될 수 있겠다.

[편집인의 해설] ... 숨겨진 역사 한 토막

종교개혁이 트렌트 공의회(Council of Trent)에서 정죄된 것은 바로 이 점(개신교 측이 가진 분명한 모순 - 편집자 주) 때문이었다. 이 기사들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개혁자들은 실 새 없이 가톨릭교회가 기록된 말씀에 포함된 진리를 떠나 배도했다고 비난하였다. “기록된 말씀,” “성경, 오직 성경,”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등이 그들의 좌우명이었으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앙 운동이 선포하는 강령이었다. 반면 가톨릭교회의 주장과 입장은 “성경과 유전,” “교부들의 일치된 동의 하에 교회가 내린 성경 해석”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트렌트 공의회가 주된 이슈였고, 공의회가 모인 주 목적은 유럽에서 개혁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이 특별한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의회에 상정된 믿음과 관련된 첫번째 의제가 바로 이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 공의회에 참석한 가톨릭 측의 대표들 중에도 유전을 포기하고 성경만을 권위의 표준으로 채택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공의회장에서 이 견해가 단호하게 제시되었던 까닭에 교황의 특사들은 “유전을 완전히 배제하고 성경을 유일한 권위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음을 교황에게 서신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개신교도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는 명백한 양보를 의미했다. 이 위기로 인해 “성경과 유전”이 확실하고 유일한 기초라고 반대편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공의회 중 극우파 대표들에게 위임되었다. 만일 이것이 성공하면 공의회는 종교개혁을 정죄하는 칙령을 내릴 수 있게될 것이고, 실패하면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여러날 계속되면서 공의회는 거의 교착상태(膠着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드디어 장시간의 치열한 정신적 긴장이 이어진 끝에 레기오(Reggio)의 대주교가 공의회장에 들어와 성경만을 주장하는 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개신교도들은 오로지 기록된 말씀만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가톨릭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등지고 배도하여 유전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반역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록된 말씀만이 믿음의 기초라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신앙고백은 거짓입니다. 다음과 같이 증명(證明)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명백하게 제칠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규정(規定)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제칠일을 거부합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려면 그들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규정된대로 제칠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규정된 안식일 준수를 거부할 뿐 아니라, 다만 본 교회의 유전일 뿐 성경상 아무 근거도 없는 일요일을 채택하여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고 '성경과 유전'이라는 필수적 교리가 확고부동하게 성립됩니다. 여기서 개신교회들이 스스로를 향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개신교 측에서는 달리 논박할 길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1530 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에 의해 “주의 날의 준수”는 다만 “교회”가 정한 것임을 개신교단이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레기오의 대주교의 변론은 성령의 감동으로 수용되었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오직 성경”을 지지하는 파(派)는 결국 승복했고 공의회는 즉시 만장일치로 개신교주의(改新敎主義)를 정죄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성찬예식(聖餐禮式)과 권위에 대항하는 부당한 반역으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1546 년 4 월 8 일, 두 가지 칙령이 선포되었다. “첫째 칙령은 성경과 유전은 함께 수용되고 공경되어야 하며, 제 2 경전(경외서를 말함 - 역사 주)도 정경(正經)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둘째 칙령은 불가타(Vulgate) 성경을 유일한 라틴어 표준 성경으로 규정하고 그 라틴어 본에 성경 원본을 파기(破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으며, 교회가 견지한 일반적 이해에 위배되는 해석, 즉 교부들의 일치한 의견과 상이한 성경 해석을 금한다”는 것이었다.⁹

이렇게 개신교 측의 행위는 그들의 신앙고백에 위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를 정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노심초사 찾고 있던 좋은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개신교 사상과 전반적 종교개혁 운동은 단지 가톨릭교회의 권위에 항거하는 이기적 야망에 의거한 반역으로 정죄되었다. 이 분쟁의 결말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성경이 규정한 제칠일 안식일은 배척하고 대신 가톨릭교회가 규정한 일요일을 준수하기로 채택한 개신교 측의 일관성 없는 관습이었다.

이것은 이 분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으로써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위의 자료가 보여주다시피 이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교회가 개신교를 규탄하는 주요 이슈를 이루고 있으며, 이 변론에 의거하여 개신교주의의 행로(行路)는 전반적으로 “변호 불능, 자기 모순적, 및 자멸적”이란 표현으로

고발, 정죄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개신교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하며, 개신교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실이거나 혹은 종교를 빙자한 속임수로 추정되는 성서적 안식일에 관련된 신성모독을 놓고 습관적으로 고향치는 경건한 개신교 목사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잡견(雜犬)에 관한 우리의 논리적이고 성서적인 분석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재고하기 바란다. 혹 사리에 맞게 분석된 단편(斷片)들이 수집되고 회생되어 활기를 띤 그 잡견이 제시될 경우, 우리는 삼가 사려깊은 숙고와 진정한 충심으로 그것에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이 경건한채 하며 호통치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너무도 잘 알거니와, 그들로부터 고독한 함성(喊聲)이 들려올 것이 분명하다고 독자들께 장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 비성서적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여 그들에게 재차 굴욕감을 안겨줄 것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 또한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의 잠정적 방침은 “저자세를 취하는 것”인데, 그들이 이 방침을 채택할 것이 분명하다.

편집자 주(註)

⁹ 공의회의 공식 회의록을 참조하라; 아우구스브루크 신앙고백;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의 “트렌트 공의회”

부록 I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이 소책자의 내용은 가톨릭 미러지에 실렸던 기사들인데 이 기사들이 제시하는 자료가 믿을만하고 그 내용의 논리가 정연(整然)하므로 이것을 재출판하여 최근에 일요일 준수에 관한 논란이 어떤 국면에 진입했으며 몇몇 선도국(先導國)들에서 내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우리는 이런 논란을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개신교도들이 어디서나 그들의 신앙고백과 행위가 철저하게 일치함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그들과 로마와의 관계에 틈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현재 상황은 이 책자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제종교자유협회는 이 문제의 진정한 형세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삼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그 진상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예의 주시해온 바 과거에 드러났던 논란의 성격이 아직도 변함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그 내용을 이 책자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 대중들과 개신교 신자들, 특별히 일요일 법령의 필요를 옹호하거나 미국에서 일요일 법제화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해왔다. 그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노선은 로마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다. 또 그들의 노력은 결국 성공할 것인데, 언젠가 그들은 불가불 로마로부터 - 더군다나 권세까지 소유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 왜 일요일이 준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사태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제 이 사태가 도래했으므로, 아직 기회가 허락될 동안 이 경고를 널리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다.

왜 로마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답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 가진 자 처럼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럴 권력이 없었다. 로마가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고 일요일을 법제화시키기 위해 맹렬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로마가 미국 정부의 권력을 자기의 손에 걸머쥐기 위하여 스스로 들인 노력보다는 미국의 개신교회들이 로마를 위해 그 일에 기여한 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던 로마는 잠잠히 기다렸던 것이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로마와 손을 잡고 이 끔찍한 일을 성취시키자마자 로마는 즉시 일어나 그들 본래의 오만(傲慢)과 옛 정신을 다시 발휘하여 개신교를 향해 그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로마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개신교도들이 맹목적으로 로마의 손에 쥐어준 권력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이렇게 개신교도들이 자기의 손에 쥐어준 권력을 로마는 이제 개신교도들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책자의 27 쪽에 실린 변론에는 가톨릭 미러지(미국의 추기경들과 가톨릭 교회를 의미함)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들어있는 바 그 이상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가서 뉴욕 헤럴드지의 1874년 기사의 인용문을 읽은 후 지금 벌어지는 결과들을 보라. 이 감리교 감독들의 진술이 명백하게 현재의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톨릭 미러지가 감리교 감독들의 진술을 19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밖에도 가톨릭교회가 차곡차곡 모아 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음을 개신교회가 알게되겠지만 그것들이 이용될 때 개신교회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힐 것이다.

현재 이 분쟁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톨릭 미러지의 사설을 재출판하는 것 외에 없다. 대두된 쟁점들은 하나같이 개신교회가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주장들이다. 가톨릭교회 측에서 논쟁을 시작했고 이에 답변할 책임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개신교회들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만일 개신교회가 아무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가톨릭교회의 주장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톨릭교회는 그에 대응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신교회 측에서 답변이 나온다면 가톨릭교회는 그들의 답변을 역이용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손에 쥐어준 권력을 통해 실력을 행사하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이 논란에 개입하든 안하든 가톨릭교회의 입장에는 아무 변동이 없을 것이다.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를 무시하는 태도며,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려는지 그 진의(眞意)가 여기 재출판된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그들의 도전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개신교도들의 피난처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 굳게 서고, 또 “여호와와 안식일”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아무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겔 20:12, 20) 외에는 아무 표도 받지 않으며,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받을 때 그들은 로마와 그의 모든 연합 세력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며,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들고 그들의 승리를 영원토록 송축하게 될 것이다.(계 18: 15:2-4)

개신교도들에게는 이 궁지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일관성 있게 개신교의 신앙 고백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개신교 정신을 공언하는 반면 “변호 불능, 자기 모순적, 자멸적” 입장을 고수하고 가톨릭 유전을 지키며 가톨릭교회의 조소와 정죄를 받을 것인가? 그들이 과연 기록된 말씀, 성경 만을 그들의 유일한 권위와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변호 불능, 자기모순적, 자멸적” 교리를 고수하며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따르고 그 권위의 표를 취할 것인가? 그들은 성경대로 여호와와 안식일인 제칠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톨릭교회의 유전을 따라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는 독자들이여, 그대는 어느 길을 택하려는가?

부록 II

개신교계의 신조와 행습 사이의 모순

다음은 “로마의 도전” 초판이 발행된 후, 1893년 12월 23일자 “가톨릭 미러”지에 발표된 사설이다.

“이 일련의 논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온 열망을 다른 이들도 추구하였다. 또 국제종교자유협회에 의해 “로마의 도전 - 개신교도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가?”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시카고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시카고를 포함하여 뉴욕, 캘리포니아, 테네시, 런던, 오스트렐리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및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판매되며 수요가 계속 증가하므로, 가톨릭 미러지는 부득불 이것을 영구적 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독자들은 이 책자를 읽을 때 개신교계의 신조와 행습 간에 존재하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모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모순은 어떤 합리적 해결책으로도 교정될 수 없다. 그들은 성경을 유일한 스승으로 따르다고 공언하면서, 그 스승인 성경이 재론의 여지없이 분명한 어조로 토요일을 ‘거룩히’ 준수하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삼백오십년 동안이나 가톨릭 영역을 점령하고 앉아 온 세상이 목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원칙을 포기하므로 상상으로써만 가능한 도무지 변호할 수 없고, 자기모순적이고 자멸적인 교리 체계를 선전하는 대표자로 서 있다.”

“독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극우(極右) 개신교 단체인 국제종교자유협회가 우리의 기사를 재출판할 때 첨가한 부록¹⁰을 사설에 게재하는 것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들이 이 부록을 정독할 때 우리의 논거가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과 개신교도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음의 두 길 중 하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길은, 부록의 필자가 분명히 제안한 것처럼, 개신교도들은 지난 삼세기 반 동안 옹구리고 있던 가톨릭 영역을 벗어나서 그들의 스승인 성경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토요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길은, 더 이상 불편한 입장에서 웅크려 앉아 있으며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살아있는 모순의 모본으로서의 현 상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유일한 스승으로 고집하던 주장을 아예 포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의 시민, 즉 그분의 교회(가톨릭)의 자녀로 입양되므로 자기 기만과 자기 모순의 희생자 신세를 면하는 것이다.”

“이 책자의 주장들은 논리 정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서 있다. 이 주장들은 세밀한 성경 연구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인 개신교도라면 그들의 스승인 성경의 명령에 따라 일요일 준수를 포기하고 토요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일요일 준수라는 가톨릭교회의 유전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일요일을 수용하여 지키고 있으므로 차라리 그들의 스승인 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일관성 있게 가톨릭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이성과 상식은 두 길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한다. 개신교주의와 토요일 성수냐? 아니면 가톨릭주의와 일요일 성수냐?. 타협은 절대로 불가하다.”

편집자 주(註)

¹⁰ 이 사설의 끝 부분에 이 책자의 부록 1 번 전체의 내용이 첨부되었음.

로마의 도전: 개신교도들은 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가?
Rome's Challenge: Why do Protestants keep Sunday?

발행처 / 미주 시조사 (koreanap@yahoo.com)

발행일 / 초판 2021 년 10 월 일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미주 시조사나
다음 전자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ignature2021.h@gmail.com